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며
매일매일 마음 관리 하여라

작성일 : 2010. 10. 5. (화)

작성자 : 주혜인

▷ 배 경

자연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사랑은 끝까지다.

힘들어도 끝까지 하다보면 끝끝내 그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네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너는 그 원하는 나의 사랑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이미 내정되었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야 우리 사랑이 끝까지다.

결국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꿈꾼다.

다들 순간 불타오르는 사랑들은 잘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도 많고 많으나

그것을 지속하여 끝까지 그 사랑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을 자가 많지 않구나.

결국 사랑도 인간의 책임분담인 것

끝까지 나를 사랑함을 놓지 않는 자가 사랑에 성공하는 자요,

그가 나와 온전히 사랑을 이룬 자이다.

어떤 자는 관념으로는 나를 사랑한다하나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치 못했기에

실상 그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신앙이 된 것이다.

나 예수가 유대인에게 일렸으되

‘잎만 무성한 나무요, 비없는 구름이라’한 것처럼 외식과 형식 가운데 진정 나에 대한 사랑의 열매는 찾아 볼 수가 없구나.

열매는 귀중한 것, 온갖 고통과 몸부림 가운데 얻어지는 인생의 걸작품이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 열매는 꽃을 피운 후에 생기는 것으로

너와 나 사랑으로 꽃피워 사랑 열매 맺는 것이다.

너희는 이 시대 앞에 나의 사랑의 열매들이다.

너희 인생의 열매를 피우듯 맺듯

이 지구촌 사랑의 열매로 창조되어 귀한 하늘 앞에 영광으로 예비 된 사랑의 대상체 들이다.

갖춘 것이 없어도 그 자리를 떠나면 안된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완벽히 앞으로 다시 올 나에게 나아와야 하다.

(예수님! 아까 당신이 오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동상이 바로 당신의 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나는 나의 동상 가운데 역사하여 나를 바라보는 자를 쳐다보고 있다.

나를 보러 온 자들이니 내가 선생과 구상하여

나의 모습 재현한 그 동상은 거의 나와 흡사하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자 나를 만난 것과 같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여

그렇다고 동상을 중시하는 자

곧 우상시 하는 자가 되어

또한 나의 심정에 합당치 않은 것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나를 보고자 간구하는 많은 자들을 위해 내가 선생 통해 내 사진을 주어 섭리사로 오게 했듯

지금 이 동상을 통해 나를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동상이 신이 아니니 그것을 표상으로 나를 떠올리고 나를 만나듯 바라보고

기념하라 그리 주는 나의 선물이다.

그것에 절하고 모시고 섬기는 것이 곧 우상이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라 준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신성시하고

내가 영으로 존재하며 그들과 삶 가운데 동행하건만

그것을 모르고 손으로 지은 동상과 만물을

나인냥 여기고 제물까지 바친다.

쉽게 우상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다.

너희 선생은 내게 배웠기에 이 모든 것을 쪼개어 가르치지 않느냐!

이 세상 구약처럼 만물에 절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많은 물질 우상, 이성 우상, 연예인 우상,
학문과 명예의 우상들을 제각기 섬기며 살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너도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삶 가운데 이처럼 우상시 한 것이 없는지!

(있습니다. 많아요. 주님께서 사람 통해 주신 것을
그 준 사람을 쳐다보고 중심하는 사람 중심, 제가
아까 깨달은 대로 주님께서선 선생님께서 가장 주
님이 원하는 대로 살며 그의 뜻대로 움직인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섭리의 많은 자들도 주님이 그를 움직이시는 분임을 모르고 살았던 자도 많았고 저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하다.
내가 선생을 믿고 그에게 사명을 준 것도
그는 오직 나의 뜻대로만 사는 자이기 때문이다.
오직 내가 믿고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자였기에 그러하다.
눈앞에 있는 지도자, 관리자, 전도자, 또
내가 보낸 각종 너희를 도울 자들도
결국 나의 육신 되어 쓰이는 자들이지
그들 통해 나를 나타낸 것일 뿐
그들 자체가 내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보이는 자는 중심하나 보이지 않는
나는 중심하고 염두에 두는 자가 많지 않구나.
사람이 보는 것은 두려우나
내가 보는 것은 두려워지 않은 자도 있고
내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
심지어 선생 눈치만 보는 자도 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인생 다스려 움직이며 너
희를 이끌어 내도록 수많은 나의 육신을 너희에게 보내었다.
선생이 왜 저리 이를 악물고
고통의 십자가 길을 가는 지 아느냐?
오직 자기 뜻이 아닌 나의 뜻 길을 가기에 그러한
것인 줄 너희는 이미 배우지 않았느냐.
그로 모든 자가 나의 육신 되어 내가 쓰는 자 되어
움직이고 있고 또 그래야 하건만
대하는 자도 행하는 자도 그 근본을 잊을 때가 있
구나.
그것이 우상이다.

이 시대의 우상이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의 자리를 가로채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우상이라 불렀다.
내가 받아야 할 사랑과 찬양과 감사를 가로채는 자
가 되어서는 또한 안된다.
내가 미워하는 우상이 스스로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게 주어야 할 감사와 영광, 사랑을 다른 곳에
주어서도 안된다.
너를 풍요롭게 할 이는 오직 나이기 때문이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거두지만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찌
곡식이 그냥 자라겠느냐.
너희의 모든 것이 그러하다.
너희가 어찌 스스로 된 자라 할 수 있느냐.
스스로 나고 자란 곡식이 없듯이
스스로 된 자는 이 세상에 없느니라.
고고 나는 삶 가운데 너희의 마음 밭에 가라지를
뽑듯
마음과 행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없애야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 너희 마음에 우상이 너
무나 많구나.
마음밭에 우상들이 가라지처럼 자리하여 그 논이
무성한 듯 하나 거둘 것이 없는 밭이로구나.
너희 인생의 농사를 짓듯 매일 매일 이렇게 기도하
며 나와 대화하며 너희 마음밭에 가라지를 뽑아내
고 없애야 한다.
‘우상’이 가로막아 나에게 올 영광이 제대로 내게
오지 못하는 구나.

(주님, 제 마음에도 우상이 많기로 오늘 기도하면서
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한다 고백하여도 무언
가 아쉽고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것이었군요!)

그래 그러하다.
네 마음의 가라지를 오늘 밤 나와 매자.
남김없이 뽑아버리자.
하루만 쉬어도 사탄들이 가라지 씨를 뿌려두어 금
세 자라나 밭을 메우는 구나.
매일매일 땀 흘리며 수고하며 기도 가운데 나와 그

가라지를 찾아내며 뽑아야 한다.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아주 그 근본, 뿌리까지 잘라야 한다.

그 우상을 발견하지 못하며 그것은 마치 기생충 마냥 나에게 올 사랑과 영광을 가로채고 또한 너희에게 갈 나의 사랑도 가로 막아 가로채 버린다.

가리지가 받을 차지하여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하듯

너희 인생을 그렇게 방해한다.

내 사랑아!

매일 나와 만나는 기도시간, 사랑의 대화로 기쁘고 즐겁지만

사탄이 씨 뿌리고 간 그 가라지를 찾아내 매일 매일 없애듯 그 몸부림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오니 이리 속시원히 가르쳐 주지 않느냐.

‘오늘도 가라지 뽑자.’

‘너의 우상을 제거하자.’

하지 않느냐.

기도하면 너의 사랑 나 예수가 하나하나 조곤조곤 가르쳐 주어 알게 할 것이다.

‘찾았다, 가라지. 어서 뽑아버려라!’

하고 내가 일러주면 너는 온힘 다해 그것을 뽑아내 버리면 된다.

오늘 사랑의 대화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의 가라지를 뽑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그리하여야 내가 온전히 보이고

너와 나의 사랑이 온전히 그 방해 하는 것 없이 이루어져 누런 황금 별판을 이루기 때문이다.

비로소 너는 우상이 없어진 자리, 서있는 나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 오늘 내가 가르쳐 더욱 나와의 사랑에 성공하게 하였으니 힘을 내자!!

가르쳐 준대로 열심히 기도하여 나와의 사랑에 성공하자.

오늘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근본된 우상을 섬기던 행실까지도 돌이켜

나와의 사랑에 성공하는 법에 대해 가르쳤다.

다르게 비유컨대 사랑 농사에 성공하는 비결을 내가 일러 준 것이다.

‘가라지 뽑기’

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안되니

‘가라지 뽑자’ 한 것이다.

알겠니?

내 사랑하는 신부들

오늘 말씀 어린 자들도 잘 이해할 것이다.

안녕!